

일부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배성숙*·노희진**·문소정**

*한서대학교 치위생학과,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치위생학과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by Health Science College Students on Job Preparation Behavior

Sung-Suk Bae*·Hie-Jin Noh**·So-Jung Mu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Hanseo University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Wonju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is designed to evaluate the influential factor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by health science college students on their job preparation behaviors.

Methods: The total 714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juniors and seniors of health science college, and the result was statistically analyzed through IBM SPSS statistics 20.0.

Results: 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job preparation behavior between male students and female students, and while seniors showed highly active job preparation behaviors, those who had high satisfaction level toward their major studies, high academic achievement, and outgoing personality had highly active job preparation behaviors. 2. Students with high satisfaction level toward their major studies, high academic achievement, outgoing personality, and high expected salaries showed high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level. 3. Students with high satisfaction level toward their major studies, high academic achievement and highly outgoing personality showed high level of career identity. 4. Subsidiary factor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ere collection of job information, goal setting, planning, and self-assessment, and all of them showed correlation with job preparation behaviors. 5. Among subsidiary factor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understanding" and understanding of job

* 본 연구는 2013년도 한서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접수일 : 2014년 3월 20일, 수정일 : 2014년 4월 11일, 채택일 : 2014년 4월 23일

교신저자 : 노희진(220-701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

Tel: 033-741-0394 Fax: 033-735-0391 E-mail: nohh14@yonsei.ac.kr

information showed correlation with job preparation behaviors.

Conclusion: For improvement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health science college students, individual support, psychological support, educational support and other supports regarding job employment to provide wide paths and methods for job preparation behaviors are essential, and through various job employment education program and graded counseling, job preparation behaviors shall be promoted as a great strategy.

Key words: Job Preparation Behavi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Identity, Career Counseling

· 서론

대학생들이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며 이를 위한 취업준비행동(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보건계열 대학생들은 대학 입학 전부터 이미 진로의 범위가 예정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진로의 선택 범위가 좁다는 이유로 취업준비행동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준비'는 예상되는 부정적 결과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의 개발이며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동하려는 노력이다(Brown과 Heath, 1984). 예상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하고 노력하는 실천 행위가 중요하다. 최근,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업무와 관련된 지식(knowledge)과 태도(attitude) 그리고 업무수행능력을 지원하는 전문기술(professional skill)까지 실질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취업준비행동은 자신의 취업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활동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며(이제경과 김동일, 2004), 자신이 원하는 회사나 분야의 취업을 목표로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고 취업에 필요한 활동을 미리 파악하여 기대되는 자격을 갖추어 나가고 본격적으로 입사지원이나 구직행동에 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은정, 2011). 지금까지 취업준비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진로

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진로태도, 진로성숙, 진로준비유형, 성취동기, 취업자신감, 취업스트레스 등과 관련이 있으며(김봉환, 1997; 이제경, 1997; 진미경, 2000; 박완성, 2002; 박완성, 2003; 이명숙, 2003; 이제경과 김동일, 2004; 유나현, 2005; 조명실, 2007; 조지혜, 2007; 이광희, 2008; 최숙현, 2008; 강재연, 2009; 박미진 등, 2009; 박선민, 2009). 특히, Bandura(1977)에 의해 처음 소개된 자기효능감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은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 정도이며 자신의 선택이 정확하다는 믿음으로(Solberg, Good, Fischer, Brown & Nord, 1995) 어떤 결과를 얻고자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자신감을 말한다. 더불어 진로정체감(Career Identity)은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 재능 등에 관하여 자신의 마음을 반영한 상태를 말하며(Holland, Daiger, Power, 1997) 자기 확신이나 적합한 판단을 토대로 합리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조희와 이규영, 2006). 이는 결국, 직업만족도가 향상되어 취업유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권경남과 최은희, 2010).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전무한 상황이며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을 파악하여,

그들의 취업성취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하위요인을 분석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을 촉진하고 취업준비행동을 도울 수 있는 진로상담 전략을 제안하고자한다.

·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보건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준비행동'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에 대한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강원, 충남 소재 4년제 두 개 대학교 재학 중인 보건계열 학과(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작업치료학과, 치위생학과) 3, 4학년 총 716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동의한 714명에 대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고 회수하였다.

2. 연구도구

1) 취업준비행동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2010)에서 개발한 대학생 취업준비도 검사의 취업준비행동척도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취업준비행동 척도 하위요인으로 '공식적 직업탐색' 6문항, '비공식적 직업탐색' 10문항, '예비적 직업탐색' 6문항, '적극적 직업탐색' 10문항, '취업준비노력' 6문항, '취업준비강도' 2문항으로 총 6개 하위요인에서 40개 문항을 구성하여 6점 척도(1=전혀 아니다, 6=매우 그렇다)의 자

기보고식 검사도구로 사용하였다. 한국고용정보원(2010)의 취업준비행동검사의 하위척도별 Cronbach

값은 공식적 직업탐색 0.942, 비공식적 직업탐색 0.889, 예비적 직업탐색 0.791, 적극적 직업탐색 0.863, 취업준비노력 0.871, 취업준비강도 0.67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공식적 직업탐색 0.800, 비공식적 직업탐색 0.839, 예비적 직업탐색 0.746, 적극적 직업탐색 0.920, 취업준비노력 0.738, 취업준비강도 0.671이었다.

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본 연구에서는 Crites(1978)의 진로성숙도 모형을 이은진(2001)이 번안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척도 하위요인에서는 '직업정보수집' 5문항, '목표설정' 5문항, '계획수립' 5문항, '문제해결' 5문항, '자기평가' 5문항으로 총 5개 하위요인에서 25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6점 척도(1=전혀 아니다, 6=매우 그렇다)의 자기보고식 검사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은진(2001)의 하위척도별 Cronbach 값은 직업정보수집 0.69, 목표설정 0.70, 계획수립 0.74, 문제해결 0.48, 자기평가 0.7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직업정보수집 0.726, 목표설정 0.793, 계획수립 0.805, 문제해결 0.675, 자기평가 0.818로 나타났다.

3) 진로정체감(Career Identity)

진로정체감 측정 도구는 Holland, Daiger, Power (1980)가 개발한 MVVS(My Vocational Situation)의 정체감척도(Identity scale)를 김봉환(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그렇다' 와 '아니다'로 되어 있는 것을 윤영란(2007)이 4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한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6점 척도(1=전혀 아니다, 6=매우 그렇다)의 자기보고식 검사도구로 사용하였다. 하위척도는 '자신의 이해' 7문항, '능력자신감' 2문항, '직업정보의 이해' 9문항으로 총 3개 하위

요인에서 18문항으로 역문항을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 재능 등이 적합하게 설정되어 있어 진로정체감형성이 잘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윤영란(2007)의 하위척도별 Cronbach 값은 자신의 이해 0.83, 능력자신감 0.87, 직업정보의 이해 0.8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이해 0.861, 능력자신감 0.508, 직업정보의 이해 0.886이었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다음의 연구내용에 따라 IBM SPSS statistics 20.0을 활용하였다. 먼저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표기하고, 취업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수준은 각각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취업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차이는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더불어 대상자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과 취업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 확인을 위

하여 상관분석(Correlation)을 실시하고, 또 그들 간에 상호 관련성 확인을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는 총 714명이었다. ‘여자’가 576명(81.8%)으로 ‘남자’ 128명(18.2%)에 비하여 많았으며, ‘4학년’이 332명(48.3%)이었고 ‘3학년’이 355명(51.7%)이었고, 다섯 개 학과 중 간호학과가 27.5%로 가장 많았다. ‘전공’에 대하여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학생이 90.6%로 많았고, ‘학업 성적’은 3.0~4.0 사이에 74.6%가 분포되어 있었다. ‘희망 월 평균 급여’는 200~250만원 사이가 가장 많았고, ‘성격’은 외향적과 보통의 비중이 높았다<표 1>.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인원	%
성별	남자	128	18.2
	여자	576	81.8
학년	4학년	332	48.3
	3학년	355	51.7
군복무상태	군필	110	16.2
	미필 또는 면제	82	12.0
	해당없음	489	71.8
학과	간호	196	27.5
	물리치료	114	16.0
	방사선	115	16.1
	작업치료	126	17.6
	치위생	163	22.8
전공만족도	매우 만족	87	12.4
	만족	246	35.0
	보통	304	43.2
	불만족	55	7.8
	매우 불만족	11	1.6

	구분	인원	%
학업성적	4.0이상	91	13.2
	3.5~4.0미만	272	39.4
	3.0~3.5미만	243	35.2
	2.5~3.0미만	81	11.7
	2.5미만	3	0.4
희망 월평균 급여	300만원이상	163	23.3
	250~300만원미만	172	24.6
	200~250만원미만	275	39.3
	150~200만원미만	83	11.9
	150만원미만	7	1.0
성격	아주 외향적	50	7.1
	외향적	219	31.1
	보통	338	47.9
	내향적	86	12.2
	아주 내향적	12	1.7

무응답 제외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준비행동 정도

남학생과 여학생이 취업준비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취업준비행동 하위요인 여섯 영역을 분석한 결과, '여자'에 비하여 '남자'가 '취업준비노력'과 '비공식적인 직업탐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은 모든 항목 및 총점에서 '3학년'보다 '4학년'이 높게 나

타났으며, 취업준비행동 총점 및 하위요인 '취업준비 강도', '공식적 직업탐색', '예비적 직업탐색', '적극적인 취업탐색'에서 모두 4학년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학과별에서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타 전공 학생들에 비하여 취업준비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학과에 만족하고, 학업성적이 높으며, 외향적인 학생의 취업준비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표 2>.

<표 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의 하위요인 수준

	구분	인원	취업준비 노력	비공식적 직업탐색	취업준비 강도	공식적 직업탐색	예비적 직업탐색	적극적인 취업탐색	취업준비 행동
성별 [†]	남자	128	3.0±0.9	3.5±0.9	3.1±1.2	3.1±1.0	3.9±0.9	2.5±1.1	3.1±0.7
	여자	576	2.8±0.9	3.3±0.9	3.1±1.1	3.1±1.0	3.8±0.9	2.5±1.1	3.1±0.7
	p-value		0.036*	0.035*	0.771	0.665	0.500	0.560	0.775
학년 [†]	4학년	332	2.9±0.9	3.4±0.9	3.4±1.2	3.3±1.0	3.9±0.9	2.9±1.1	3.2±0.7
	3학년	355	2.8±0.9	3.3±0.8	2.9±1.0	3.0±0.9	3.7±0.9	2.1±0.9	3.0±0.6
	p-value		0.824	0.243	<0.001*	0.003*	0.006*	<0.001*	<0.001*
학과 [‡]	간호	196	3.0±0.9	3.5±0.9	3.7±1.2	3.5±1.0	3.9±0.9	3.2±1.2	3.4±0.7
	물리치료	114	2.8±0.9	3.4±0.8	3.1±1.1	3.1±0.9	3.8±0.9	2.5±1.0	3.1±0.7
	방사선	115	2.8±0.7	3.3±0.8	2.9±1.1	2.9±0.9	3.9±0.9	2.2±1.0	3.0±0.6
	작업치료	126	3.0±0.9	3.4±0.9	3.0±1.0	3.1±0.9	4.0±0.9	2.2±0.9	3.1±0.6

구분	인원	취업준비 노력	비공식적 직업탐색	취업준비 강도	공식적 직업탐색	예비적 직업탐색	적극적인 취업탐색	취업준비 행동	
치위생	163	2.6±0.8	3.2±0.9	2.7±0.9	2.9±0.9	3.5±0.9	2.1±0.9	2.8±0.7	
p-value		<0.001**	0.082	<0.001**	<0.001**	<0.001**	<0.001**	<0.001**	
전공 만족도 [‡]	매우 만족	87	2.9±1.0	3.6±1.0	3.4±1.2	3.4±1.0	4.2±1.0	2.5±1.2	3.3±0.8
	만족	246	2.8±0.8	3.5±0.9	3.1±1.1	3.2±1.0	3.9±0.9	2.5±1.0	3.1±0.7
	보통	304	2.9±0.9	3.3±0.8	3.1±1.1	3.1±0.9	3.6±0.8	2.5±1.1	3.1±0.7
	불만족	55	2.7±0.8	3.1±0.9	3.0±1.2	2.8±1.0	3.9±0.9	2.3±1.1	2.9±0.7
	매우 불만족	11	2.5±0.9	3.3±0.8	3.1±0.9	3.1±1.2	3.9±0.9	2.7±1.2	3.1±0.6
	p-value		0.244	0.003**	0.170	0.011**	<0.001**	0.622	0.015**
학업 성적 [‡]	4.0이상	91	3.0±0.9	3.6±0.9	3.3±1.3	3.4±1.0	4.2±0.9	2.7±1.2	3.3±0.7
	3.5~4.0미만	272	2.8±0.8	3.4±0.9	3.2±1.1	3.2±0.9	3.9±0.9	2.7±1.1	3.2±0.7
	3.0~3.5미만	243	2.8±0.9	3.3±0.8	3.1±1.1	3.1±1.0	3.7±0.8	2.3±1.1	3.0±0.7
	2.5~3.0미만	81	2.9±0.9	3.2±0.9	2.8±1.0	3.0±0.9	3.6±0.8	2.4±1.0	3.0±0.6
	2.5미만	3	1.8±1.3	1.9±1.6	1.5±0.9	1.8±1.3	2.1±1.0	1.6±1.0	1.8±1.2
	p-value		0.067	0.002**	0.004**	0.003**	<0.001**	<0.001**	<0.001**
희망 월평균 급여 [‡]	300만원이상	163	3.0±0.9	3.4±0.9	3.4±1.2	3.4±1.1	4.1±1.0	2.7±1.2	3.3±0.8
	250~300만원미만	172	2.9±0.9	3.4±0.9	3.2±1.1	3.1±1.0	3.9±0.9	2.6±1.1	3.2±0.8
	200~250만원미만	275	2.8±0.9	3.3±0.9	3.0±1.0	3.0±0.9	3.6±0.8	2.3±1.0	3.0±0.7
	150~200만원미만	83	2.6±0.8	3.2±0.9	2.9±1.1	2.9±0.9	3.6±0.9	2.2±1.1	2.9±0.7
	150만원미만	7	3.0±1.0	3.8±0.5	3.1±0.7	3.5±1.1	3.6±0.5	3.2±1.3	3.4±0.6
	p-value		0.007**	0.177	0.001**	0.002**	<0.001**	<0.001**	<0.001**
성격 [‡]	아주 외향적	50	3.0±1.1	3.6±1.0	3.4±1.3	3.5±1.2	4.0±0.9	2.6±1.4	3.3±0.9
	외향적	219	2.8±0.9	3.5±0.9	3.2±1.2	3.2±1.0	3.8±0.8	2.5±1.0	3.1±0.7
	보통	338	2.9±0.9	3.3±0.9	3.1±1.1	3.1±0.9	3.8±0.9	2.5±1.1	3.1±0.7
	내향적	86	2.7±0.8	3.2±0.8	2.9±1.1	2.9±0.9	3.6±0.9	2.4±1.2	2.9±0.7
	아주 내향적	12	2.7±0.6	3.0±1.0	2.3±0.8	2.6±0.8	3.4±1.1	2.3±1.1	2.8±0.7
	p-value		0.076	0.031**	0.005**	0.002**	0.038**	0.764	0.015**

[†] Independent t-test: *p<0.05, [‡] One-way ANOVA: **p<0.05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정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또한 '4학년'이 '3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다섯 영역을 분석한 결과, '4학년'이 '3학년'에 비하여 '직업정보 수집'과 '목표 설정', '계획 수립' 등 모든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간호학과'와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이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3>. 전반적으로 전공만족도가 높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외향적이고 희망 급여가 높은 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수준

	구분	인원	직업정보 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	진로결정자 기효능감
성별 [†]	남자	127	4.0±0.9	4.2±0.9	4.0±1.0	3.9±0.8	4.2±0.9	4.0±0.8
	여자	571	4.0±0.8	4.1±0.9	4.0±0.9	3.7±0.9	4.1±0.9	3.9±0.8
	p-value		0.987	0.286	0.719	0.006*	0.124	0.194
학년 [†]	4학년	329	4.0±0.9	4.2±1.0	4.1±0.9	3.8±0.9	4.2±0.9	4.1±0.8
	3학년	352	3.9±0.8	4.0±0.9	3.9±0.9	3.6±0.8	4.0±0.8	3.9±0.7
	p-value		0.194	0.002*	0.001*	0.007*	<0.001*	0.001*
학과 [‡]	간호	196	4.2±0.9	4.3±0.9	4.4±0.9	3.8±0.9	4.3±0.9	4.2±0.8
	물리치료	114	4.0±0.8	4.1±0.9	4.0±0.8	3.8±0.9	4.1±0.8	4.0±0.7
	방사선	115	3.7±0.9	4.0±1.0	3.8±1.0	3.5±0.8	3.9±1.0	3.8±0.8
	작업치료	126	4.0±0.9	4.2±0.9	4.0±0.9	3.9±0.8	4.2±0.9	4.1±0.8
	치위생	160	3.7±0.7	3.7±0.8	3.6±0.8	3.5±0.8	3.8±0.7	3.7±0.6
	p-value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전공 만족도 [‡]	매우 만족	87	4.4±1.1	4.8±1.1	4.5±1.2	3.9±1.0	4.6±1.1	4.4±1.0
	만족	244	4.1±0.8	4.3±0.8	4.2±0.8	3.8±0.8	4.2±0.8	4.1±0.7
	보통	300	3.8±0.8	3.8±0.8	3.8±0.8	3.6±0.8	3.9±0.8	3.8±0.7
	불만족	55	3.8±0.8	3.7±0.9	3.7±0.9	3.6±0.9	3.8±0.9	3.7±0.8
	매우 불만족	11	3.6±0.7	3.9±0.8	4.1±1.0	3.8±1.0	4.0±1.0	3.9±0.8
	p-value		<0.001**	<0.001**	<0.001**	0.005**	<0.001**	<0.001**
학업 성적 [‡]	4.0이상	90	4.2±0.9	4.4±1.0	4.3±1.0	4.1±0.9	4.4±0.9	4.3±0.8
	3.5~4.0미만	270	4.0±0.9	4.2±0.9	4.1±0.9	3.7±0.8	4.1±0.8	4.0±0.7
	3.0~3.5미만	241	3.8±0.8	3.9±0.9	3.8±0.9	3.5±0.8	3.9±0.9	3.8±0.7
	3.0~2.5미만	80	3.9±0.7	4.0±0.9	3.9±0.9	3.6±0.8	3.9±0.9	3.9±0.8
	2.5 미만	3	3.1±2.0	3.5±2.5	3.1±2.1	2.9±1.8	3.5±2.3	3.2±2.1
	p-value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희망 월평균 급여 [‡]	300만원이상	161	4.2±1.0	4.3±1.0	4.3±1.0	3.9±0.9	4.3±1.0	4.2±0.9
	250~300만원미만	171	3.9±0.8	4.1±0.9	4.0±0.9	3.7±0.8	4.1±0.8	4.0±0.8
	200~250만원미만	273	3.9±0.8	4.0±0.9	3.9±0.9	3.6±0.8	4.0±0.8	3.9±0.7
	150~200만원미만	82	3.8±0.9	3.9±0.9	3.7±0.9	3.6±0.9	3.8±0.9	3.7±0.8
	150만원미만	7	3.9±0.7	4.3±0.9	3.9±0.4	3.7±0.4	4.2±0.4	4.0±0.3
	p-value		0.006**	0.004**	<0.001**	0.020**	<0.001**	<0.001**
성격 [‡]	아주 외향적	50	4.4±1.0	4.6±1.0	4.5±1.0	3.8±1.0	4.4±1.0	4.3±0.9
	외향적	218	4.0±0.8	4.2±0.9	4.1±1.0	3.7±0.9	4.1±0.9	4.0±0.8
	보통	334	3.9±0.8	4.1±0.9	4.0±0.9	3.7±0.8	4.1±0.8	4.0±0.7
	내향적	85	3.7±0.8	3.8±0.9	3.6±0.8	3.5±0.7	3.7±0.8	3.7±0.7
	아주 내향적	12	3.6±0.7	3.8±1.1	3.4±1.1	3.4±0.6	3.7±0.7	3.5±0.8
	p-value		<0.001**	<0.001**	<0.001**	0.181	<0.001**	<0.001**

[†] Independent t-test: *p<0.05, [‡] One-way ANOVA: **p<0.05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 정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에서 남녀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았으며, '4학년'이 '3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간호학과'가 타 학과에 비하여 점수가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학과에 만족하고,

학업 성적이 높으며, 외향적인 학생의 진로정체감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진로정체감 하위요인 세 가지 영역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4학년'이 '3학년'에 비해 '자신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고,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며 '직업정보에 관한 이해' 수준이 높았다<표 4>.

<표 4>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인 수준

	구분	인원	자신의 이해	능력자신감	직업정보의 이해	진로정체감
성별 [†]	남자	128	3.3±1.1	3.7±1.0	3.9±1.0	3.6±0.9
	여자	576	3.5±1.0	3.9±1.1	4.0±1.0	3.8±0.9
	p-value		0.118	0.086	0.084	0.068
학년 [†]	4학년	332	3.6±1.1	4.0±1.0	4.2±1.0	3.9±0.9
	3학년	355	3.3±1.0	3.7±1.0	3.9±0.9	3.6±0.9
	p-value		0.001*	0.001*	0.001*	<0.001*
학과 [‡]	간호	196	3.8±1.1	4.0±1.1	4.3±1.1	4.1±1.1
	물리치료	114	3.4±1.1	3.8±1.0	3.9±0.9	3.7±0.9
	방사선	115	3.4±1.1	3.8±1.0	4.0±1.1	3.8±1.0
	작업치료	126	3.1±1.0	3.6±1.0	3.8±0.9	3.5±0.8
	치위생	163	3.2±0.9	3.8±0.9	3.8±0.8	3.6±0.8
	p-value		<0.001**	0.017**	<0.001**	<0.001**
전공 만족도 [‡]	매우만족	87	4.0±1.2	4.4±1.2	4.7±1.1	4.4±1.1
	만족	246	3.7±0.9	4.0±1.0	4.2±0.9	4.0±0.8
	보통	304	3.2±1.0	3.7±0.9	3.7±0.8	3.5±0.8
	불만족	55	2.8±1.0	3.5±1.0	3.4±0.9	3.2±0.8
	매우 불만족	11	3.2±1.1	3.7±1.1	4.0±0.7	3.7±0.8
p-value		<0.001**	<0.001**	<0.001**	<0.001**	
학업 성적 [‡]	4.0이상	91	3.5±1.1	4.0±1.2	4.3±1.1	3.9±1.0
	3.5~4.0미만	272	3.6±1.0	3.9±1.0	4.1±1.0	3.9±0.9
	3.0~3.5미만	243	3.3±1.1	3.8±1.0	3.8±0.9	3.6±0.9
	3.0~2.5미만	81	3.1±0.9	3.8±0.9	3.8±0.8	3.5±0.7
	2.5 미만	3	4.3±1.5	4.3±1.8	4.7±1.2	4.5±1.3
	p-value		0.003**	0.310	0.001**	0.001**
희망 월평균 급여 [‡]	300만원이상	163	3.4±1.2	3.9±1.1	4.1±1.1	3.8±1.0
	250~300만원미만	172	3.6±1.1	3.9±1.1	4.1±1.0	3.9±1.0
	200~250만원미만	275	3.4±1.0	3.8±1.0	3.9±0.9	3.7±0.8
	150~200만원미만	83	3.3±1.0	3.7±0.9	3.9±0.9	3.6±0.9
	150만원미만	7	3.5±0.5	4.3±1.3	4.0±0.8	3.9±0.7
p-value		0.220	0.636	0.364	0.322	

구분	인원	자신의 이해	능력자신감	직업정보의 이해	진로정체감
아주 외향적	50	3.8±1.2	4.2±1.1	4.4±1.1	4.1±1.0
외향적	219	3.6±1.1	4.0±1.1	4.2±1.0	3.9±1.0
보통	338	3.4±1.0	3.8±1.0	3.9±0.9	3.7±0.9
내향적	86	3.2±0.9	3.6±1.0	3.7±0.8	3.5±0.8
아주 내향적	12	2.9±1.2	3.4±0.8	3.6±1.1	3.3±0.9
p-value		0.001**	<0.001**	<0.001**	<0.001**

† Independent t-test: *p<0.05, ‡ One-way ANOVA: **p<0.05

5.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취업준비행동의 관련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하위요인 모두에서 취업준비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계획수립'의 항목에 0.471로 상관계수가 가장 높았으며 '목표설정'

항목이 0.366으로 상관계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5>. 또한 회귀분석 결과 '계획수립' 항목이 여전히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정보의 수집'과 '문제해결' 항목도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약 25% 정도로 낮았다<표 6>.

<표 5>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별 취업준비행동과의 상관관계

	1	2	3	4	5	6
1. 직업정보수집	1					
2. 목표설정	.765**	1				
3. 계획수립	.792**	.812**	1			
4. 문제해결	.512**	.490**	.570**	1		
5. 자기평가	.727**	.806**	.802**	.618**	1	
6. 취업준비행동	.417**	.366**	.471**	.386**	.374**	1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p<0.01

<표 6>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B	SE	CI
직업정보수집	.110	.047	.134 .017-.203
목표설정	-.052	.050	-.067 -.150-.047
계획수립	.301	.052	.392 .199-.402
문제해결	.156	.035	.189 .087-.224
자기평가	-.081	.053	-.101 -.185-.022

Multiple linear regression (R=.502, R²=.252)

6. 진로정체감 및 취업준비행동 간 관련성

진로정체감 하위요인 중 ‘자신의 이해’와 ‘직업정보의 이해’ 항목이 취업준비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었으나 상관계수가 0.079와 0.089로 낮았으며 <표 7>,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표 7>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인별 취업준비행동과의 상관관계

	1	2	3	4
1. 자신의 이해	1			
2. 능력자신감	.623**	1		
3. 직업정보의 이해	.743**	.660**	1	
4. 취업준비행동	.079*	.035	.089*	1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p,0.05, **p<0.01

<표 8>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인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인	B	SE	CI
1. 자신의 이해	.020	.039	.030 - .056-.096
2. 능력자신감	-.034	.035	-.050 - .104-.035
3. 직업정보의 이해	.072	.044	.100 - .013-.158

Multiple linear regression (R=.097, R²=.009)

. 논의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을 촉진하고 취업준비를 돕기 위하여 그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취업준비행동’을 파악하고, 각 하위요인의 비교를 통하여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요인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먼저, 취업준비행동을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여섯 개 하위요인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취업준비노력’과 ‘비공식적인 직업탐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선민(1994)의 연구결과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취업에 관한

포부나 의지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학년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은 모든 항목 및 총점에서 ‘4학년’이 ‘3학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준비행동 하위요인 중 ‘취업준비강도’, ‘공식적 직업탐색’, ‘예비적 직업탐색’, ‘적극적인 취업탐색’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김은정(2011)의 대학생 진로결정수준과 취업준비행동 관계에서도 취업준비행동 총점뿐만 아니라 취업준비행동 영역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4학년’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덧붙여 윤영란(2007)의 진로지도 방안에서는 자신의 흥미, 능력, 적성 등에 대한 ‘자기이해’는 ‘1-2학년’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계획'과 '본격적인 직업탐색'은 '3-4학년'에 역점을 두도록 제안하였는데(윤영란, 2007),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취업준비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여겨진다. 학과별로 보았을 때 '간호학과' 학생들이 타 전공 학생들에 비하여 취업준비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전 학과에서 전반적으로 학과에 만족하고, 학업 성적이 높으며, 외향적인 학생의 취업준비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역시, 본 연구의 결과에서 '4학년'이 '3학년'에 비하여 '직업정보를 수집'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 수립' 등 모든 항목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선행연구에서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은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용길과 강경희(2011)의 연구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송주현(2008)의 '3, 4학년'을 대상의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 이는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를 시사한다. '전공만족도' 비교에서 선행연구 중 보건계열 내에서의 비교는 찾아볼 수 없었고, 본 연구의 결과,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계열 간 전공만족도 결과'에서는 이용길과 강경희(2011)의 연구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송주현(2008)의 연구결과에서 전공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가 있어서 참고할 만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 '전공만족도'가 높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외향적'이고 '희망 급여가 높은 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는 직업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Brooks, 1990),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는 직업탐색 행동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Blustein, 1989; Luzzo, 1993)는 연구 결과와 같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으면서 전공만족도가 높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외향적인 학생들이 직업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직업탐색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언과 김안국(2006)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과 진로개발성과 변인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여러 선행 연구들도 참고할 만하다(이명숙, 2003; 박지은, 2006; 송현심, 2010; 주명진, 2010).

진로정체감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4학년'이 '3학년'에 비해 '자신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고,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며 '직업정보에 관한 이해'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간호학과'가 타 학과에 비하여 점수가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학과에 만족하고, 학업 성적이 높으며, 외향적인 학생의 진로정체감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인 양승권(2004)의 고등학생 대상의 조사 결과에서는 성별, 학년별 주요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준 바 있으며, 진로정체감은 직업에 대한 자신의 객관적 이해, 개인의 행동과 미래를 결정하는 직업에 대한 자신의 능력과 자신감의 표현이다. 진로정체감 형성에는 일관된 진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구체화된 자기개념 또는 정체감 형성의 발달이 필요하며(Super, 1984)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해 학과에 만족하고, 학업 성적이 높으며, 외향적인 성격을 지향할 수 있도록 상담, 지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취업준비행동의 관련성은 본 연구 결과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하위요인 모두에서 취업준비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선행연구인 강정은(2008)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 준 바 있다. 또한 조기윤(2012)의 대학생의 취업불안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가 취업준비행동 전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p < .01$),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체와 진로준비행동 간에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송현심(2010)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은 진로준비행동 하위요인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과 개인적인 직업적 가치 등을 효율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선택이 정확하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개념이다(Solberg, Good, Fisher, Brown & Nord, 1995). 보건계열 대학생들에게 진로탐색과 관련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향상으로 다양한 진로탐색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적 확신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윤영란, 2007). 이상의 결과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결국 취업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각 하위요인 간에서도 서로 정적상관을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정체감과 취업준비행동 간 관련성은 본 연구의 결과에서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인 중 '자신의 이해'와 '직업정보의 이해' 항목이 취업준비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상관계수가 0.079와 0.089로 낮았다. 홍혜경(1998)의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도 진로결정수준이 낮을수록 진로정체감 역시 낮게 나타났으며 국내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진로정체감이 진로준비행동과 관련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기정과 이연희, 1999; 장기명, 2002; 김현수 등, 2004).

이상의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 강화를 위해서는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자신의 이해'와 '직업정보의 이해'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진로정체감은 특히 진로 선택에서 나타나는 결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직업적·개인적 적응을 보다 광범위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Holland & Holland, 1997), 특히, 대학생 시기에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직업세계에 대해 고민하고 직업관을 확립하며, 이를 통해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 강화를 위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 촉진을 위한 각 개인의 인지적인 능력과 특성 및 욕구를 파악하고 단계적인 상담을 위한 취업전략을 돕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강원도와 충청남도의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조사한 연구이며 전국 지역과 전체 학년을 모두 조사하지 못하여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향후 지리적, 상황적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결론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보건계열 3, 4학년 총 71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조사하고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처리는 IBM SPSS statistics 20.0을 활용하였고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1. 성별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취업준비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으며, 학년에서는 취업준비행동의 모든 항목 및 총점에서 3학년보다 4학년이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준비행동 총점과 취업준비 강도, 공식적 직업탐색, 예비적 직업탐색, 적극적인 취업탐색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학과별로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취업준비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학과에 만족하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학업 성적이 높으며, 외향적인 학생의 취업준비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또한 4학년이 3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다섯 개의 하위요인에서도 직업정보를 수집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등 모든 항목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본 연구 결과에서 전공만족도가 높

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외향적이고 희망 급여가 높은 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진로정체감 전체 평균 점수는 4학년이 3학년에 비하여 높았다. 간호학과가 타 학과에 비하여 점수가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학과에 만족하고, 학업 성적이 높으며, 외향적인 학생의 진로정체감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진로정체감의 세 가지의 하위요인인 자신에 대한 이해, 능력에 대한 자신감, 직업정보에 관한 이해 수준이 모두 4학년에서 높게 나타났다.

4.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은 모두 취업준비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계획수립의 항목에 0.471로 상관계수가 가장 높았으며 목표설정 항목이 0.366으로 상관계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5>. 또한 회귀분석 결과 계획수립 항목이 여전히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정보의 수집과 문제해결 항목도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약 25%정도로 낮았다.

5.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인 중 자신의 이해와 직업정보의 이해 항목이 취업준비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상관계수가 0.079와 0.089로 낮았으며,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와 같이,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 향상을 위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와 진로정체감 하위요인인 '자신의 이해', '직업정보의 이해'에 대한 개인적 지원 및 심리적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학생상담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준비활동인 취업박람회, 취업설명회, 취업연수, 워크샵 등 취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적 지원과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한 자신의 이해 및 폭넓은 취업준비행동 경로와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개인의 인지적인 능력과 특성 및 욕구를 파악하고 단계적인 상담을 통해 취업준비행동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기초로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준비 프로그램과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강정은. 진로장벽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4년제 여자대학생과 전문대 여자대학생의 비교-[석사학위논문].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8.
2. 권경남, 최은희. 간호학생의 진로정체감 영향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010;24(1):19-28.
3. 김기정, 이연희.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탐색 집단상담의 효과 연구[석사학위논문]. 경남: 창원대학교 대학원, 1999.
4. 김봉환.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박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대학원, 1997.
5. 김은정. 대학생 진로결정수준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6. 김헌수, 장기명, 이난.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적용이 대학생의 진로 및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효과. 교육심리연구: 한국교육심리학회 2004;18:261-278.
7. 박미진, 김진희, 정민선. 취업준비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한국상담학회지 2009;10(1):417-435.
8. 박선민.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와 신체 및 정신 증상[석사학위논문]. 대구: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2009.
9. 박완성.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교육방법연구 2002;14(2):

- 103-123.
10. 박완성. 고교생의 진로자아효능감·진로준비행동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박사학위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3.
 11. 박지은.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5.
 12. 송주현. 대학생의 전공계열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차이[석사학위논문]. 충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 전문대학원, 2008.
 13. 송현심.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율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서울: 명지대학교 대학원, 2010.
 14. 양승권.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충남: 한서대학교 대학원, 2004.
 15. 이광희. 대학생의 애착정서지능,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간의 구조적 관계[박사학위논문]. 서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8.
 16. 이명숙.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장애지각준비행동 간의 관계 분석[석사학위논문]. 전북: 전주대학교 대학원, 2003.
 17. 이선민. 대학생의 취업포부와 취업전략[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4.
 18. 이용길, 강경희.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효능감 분석 -공학 및 사회계열을 중심으로 -. 공학교육연구 2011;14(2):65.
 19. 이은진.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 수준을 매개로-[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20. 이제경.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발달의 대학전공분야별 비교[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7.
 21. 이제경, 김동일. 한국대학생 취업준비행동과 발달적 특성. 청소년상담연구 2004;12(2): 107-123.
 22. 임언, 김안국. 진로지도와 노동시장 이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23. 유나현. 애착, 심리적 독립, 정서지능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5.
 24. 윤영란. 대학생의 효과적인 진로지도 방안 연구 -진로교과목 수업과 진로집단 상담을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서울: 상명대학교 대학원, 2007.
 25. 장기명. 대학생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및 과정분석[박사학위논문]. 전북: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2.
 26. 조기윤. 대학생의 취업불안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부산: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27. 조명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박사학위논문].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7.
 28. 조지혜. 성취동기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대학생의 진로태도 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7.
 29. 조희, 이규영. 간호대학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006;2(2):163-173.
 30. 주명진. 대학생의 불안과 진로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부산: 경성대학교 대학원, 2010.
 31. 진미경.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진로유형화와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0.
 32. 최숙현.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태도 성숙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박사학위논문]. 전북: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8.
 33. 홍혜경. 진로결정상태 모형에 의한 대학생의 진로결정상태의 유형화[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

- 여자대학교 대학원, 1998.
34. Bandur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 *Psychological Review*, 1977;17:201-207./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1982./Self-efficacy theory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s*, 1986;37:122-147./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cognitive view.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89.
 35. Blustein, DL. The role of career exploration in the career decision making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1988;30:111-117. _____The role of goal instability and career-efficacy in he career exploration pro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989;35:194-203.
 36. Brooks. Validity concerns for counsellors using the 1989 edition of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Canadian Counsellor* 1990;18(1):5-12.
 37. Brown, SD., & Heath, LC. opnig with critical life events: An integrative cognitive-behavioral model for research and practice. In SD. Brown & RW. Lent(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New York, NY: Wiley, 1984. pp. 545-578
 38. Crites, JO.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Monterey, CA: College Testing Board/McGraw-Hill. 1978.
 39. Holland, JL., & Holland JE.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77;24:404-464.
 40. Holland. JL., Daiger. DC.. & Power. PG. *My Vocational Situation*.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y Press., 1980.
 41. Luzzo, DA.. Valu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predicting career decision-making attitudes and skil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93;40:194-195.
 42. Solberg, VS., Good, GE., Fisher, AR., Brown, SD. & Nord, D.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search activities: Relative effect of career search self-efficacy and human agency, 1995.
 43. Super, DE. Vocational adjustment: Implementing a self-concept. *Occupation* 1951;30: 88-92. _____The Psychology of Career, New York: Hayser, 1957. _____Career development: Self-concept theory: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1963. _____ Career and life development. In D. Brown & L., 1984.